

2026.08.24.

VOL.603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임상 의사결정 통합과
미국 GAO의 정책 옵션 제언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임상 의사결정 통합과 미국 GAO의 정책 옵션 제언

1

02

무역통상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중국 의존 심화 ... 자국 생산 전환에는 수년 소요될 전망

5

미국-인도, 제약 협력 관계를 제네릭 중심에서 공동연구·투자로 확대 모색

5

수다르산 파마, 수출 확대 및 하이데라바드 신공장 가동으로 분기 실적 개선

5

산도스, 중국 바이오텍과 계약 체결하며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

6

인도-독일 헤센주, AI·청정에너지·제약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 논의

6

IAG 카고, 쿠알라룸푸르에 콜드체인 거점 신설하며 아시아·태평양 물류망 확대

6

스위스 2분기 경제성장, 관세 회피 목적 제약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치 상회

7

미국-인도, 무역협정을 위해 디지털 통상 및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진행

7

인도-싱가포르, 헬스케어 포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4차 장관급 회의 개최

7

03

의료 인공지능

하버드의과대학 연구진, 뇌 영역 간 소통을 해독하는 AI 프레임워크 'CUBRD' 개발

8

클리블랜드 클리닉-IBM 연구진, 수면다원검사 데이터 기반 AI 위험 예측 모델 개발

8

스탠퍼드대학-아크 연구소 연구진, AI로 자연계에 없던 박테리오파지 게놈 설계 성공

9

유나이티드 하찰라, AI 기반 응급상황 예측 구급차 네트워크 도입

9

아수타 메디컬 센터-마이크로소프트, AI 진료보조 에이전트 공동개발

10

글로벌 엣지 AI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 2036년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10

유타대학 헬스 연구진, 유전학과 AI를 결합해 골관절염 신약후보 발굴

11

중국, 생명과학 분야 AI 규제 강화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커져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AIOTF 소프트웨어, CPAT 테크놀로지스 인수해 아프리카 의약품 추적 통합 플랫폼 도입	12
베른대학-취리히연방공과·응용과학대학 연구진, DNA 암호화 화합물 라이브러리 합성법 개발	12
DNA 스크립트-GE 헬스케어, ARPA-H 지원받아 세포 없는 DNA 생산기술 개발 나서	13
프리시제네틱스, 암세포를 실시간 관찰하는 생세포 이미징 플랫폼 '라이브-셀 시네마' 개발 중	13
모더나, mRNA 독감 백신 '엠펙루시바' FDA 승인 획득	14
미국 군의료센터 산하 3D 메디컬 응용센터, 3D프린팅 임플란트 FDA 510(k) 시판전신고 획득	14
국제공동연구팀, 체온에서 자동 팽창하는 4D프린팅 혈관 스텐트 개발	15
베트남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온라인 매출 30% 성장 ... '정품·브랜드' 중심으로 재편	15

05

의료서비스

참 리버사이드, 다낭에 웰니스·온천 리조트 개장으로 건강관리 관광 모델 확장	16
보아오 러칭,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정책 힘입어 '의료+관광' 융합모델 구축	16
파키스탄, 비자 규정 완화 등으로 지역 의료관광 허브 조성 추진	17
이므칸, 이집트 국가 의료관광 플랫폼 출범을 전략적 조치로 평가	17
위 케어 아시아, 말레이시아 사라왁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쿠칭 사무소 개소	18
쿠비바-필립스, 병원-가정 연계 원격모니터링 협력 확대	18
KPJ 헬스케어-싱헬스, 미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19
이집트 보건청, 튀르키예 의료기관과 협력 추진 ... 병원 공동개발 검토	19

06

글로벌 행사

FOCUS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임상 의사결정 통합과 미국 GAO의 정책 옵션 제언

1 정책 제언 배경 및 현황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임상 활용 확산과 GAO 보고서 발간

-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2026년 8월 6일 웨어러블(Wearable) 헬스케어 기기가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를 발간함 ▶ <관련 내용 보기>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2025년 6월 하원 청문회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의 의료 현장 활용 확대를 지지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4년 내 모든 국민이 웨어러블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정책 의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임상 통합 논의가 이미 연방 차원의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줌

*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주도하는 보건정책 기조로, 만성질환 예방과 웨어러블 등 디지털 건강기술 활용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함

웨어러블 기기 시장 성장과 기존 활용의 한계

-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5년 537억 3,000만 달러(한화 80조 4,673억 원)에서 2035년 5,028억 5,000만 달러(한화 752조 7,173억 원)까지 연평균성장률 25.0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형 △웰니스(Wellness)형**으로 구분되며,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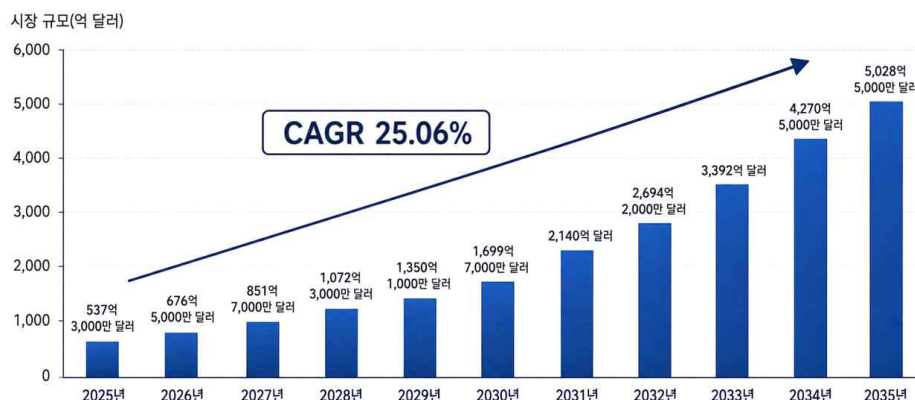
** 건강관리 및 피트니스 목적의 일반 소비자용 기기, 의료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이러한 인허가 체계에도 불구하고 GAO는 기기별 정확도 및 신뢰도 편차와 임상 워크플로(Clinical Workflow)*** 통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웨어러블 기기가 임상 의사결정에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임상 현장에서 환자 데이터를 △수집 △해석 △기록하고 이를 치료 결정에 반영하는 일련의 업무 절차

- 이는 웨어러블 데이터를 임상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 글로벌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규모 전망(2025~2035)



[자료] Precedence Research

2 웨어러블 임상 통합 구조와 GAO의 정책 옵션 설계

웨어러블 데이터의 임상 활용 구조 및 AI 결합

- 웨어러블 기기는 센서를 통해 활력징후(Vital Sign)*를 측정하고 개인별 건강 기준치를 설정하며, 건강 이상 징후 발생 시 △환자 △보호자 △임상의에게 경고를 전달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제안하는 형태로 활용됨
*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신체의 기본적인 생리 지표
- 또한, 수집 데이터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를 임상의에게 전달해 해석을 요청하는 구조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GAO는 이러한 구조에 AI가 결합될 경우 웨어러블 기기가 임상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 다만 웨어러블 기기가 임상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웨어러블 임상 통합의 3대 도전과제와 GAO의 3대 정책 옵션

- GAO는 웨어러블 기기의 임상 의사결정 통합을 가로막는 도전과제로 ①환자 편의 보장의 불확실성 ②임상 워크플로 통합의 어려움 ③헬스테크(HealthTech) 시장 탐색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정책 옵션을 제시함

** ①: 기기별 정확도와 신뢰도의 편차로 인해 웨어러블 데이터가 항상 의도한 만큼의 환자 편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
②: 데이터 수신 △해석 △책임 소재에 관한 공통기준이 부재해 의료기관별로 통합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의미
③: 인증되지 않은 기기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출시됨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

옵션 ① 현상유지(Status Quo)

- 정책결정자가 기존 디지털헬스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민간 부문이 임상 목적의 웨어러블 활용을 자율적으로 시험해나가도록 두는 방식
- 최근 진행 중인 디지털헬스 기술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환자 편의 확보 △임상 워크플로 통합 △헬스테크 시장 탐색이라는 도전과제 중 일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정책적 개입 없이는 세 도전과제 중 일부가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을 수 있고, 별도의 공통기준이나 조율 없이 민간 주도로 활동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기기 간 편차나 시장 혼선 같은 문제가 심화될 위험이 있음

옵션 ② 임상 워크플로 통합(Integration into Clinical Workflows)

- 의료기관의 임상 절차와 기술 인프라를 웨어러블 기기 통합에 맞게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데이터 수신 △대응 △보호에 관한 공통 관행을 확립해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결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웨어러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임상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법적 책임 우려 완화가 가능함
- 다만 △의료기관의 자원이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서 전용될 수 있다는 점 △지역별 시행 전략에 따라 환자와 임상의가 체감하는 결과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정 웨어러블 위주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선택되지 않은 기기의 활용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함

옵션 ③ 웨어러블 성능 개선 유도(Improvements to Wearables Performance)

- 독립 인증 절차를 완료한 권장 기기 목록을 담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조사의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
- 웨어러블 성능 시험과 정보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 △임상의 △환자가 기기를 더 잘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인증 획득·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제조사의 환자 건강·안전 관련 시험을 촉진할 수 있음
- 해당 인증이 FDA 심사와 별도로 운영될 경우 혼선을 초래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구개발 비용 상승으로 대형·기존 제조사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3 산업·시장 파급효과

임상 통합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전망

- 웨어러블 데이터가 임상 의사결정에 통합될 경우 임상 의의 진단 속도가 빨라지고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치료 순응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RPM)*의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도 기대됨
 - *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의료기기로 △혈압 △혈당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데이터가 원격으로 담당 의사에게 전송되어 실시간 관리와 치료를 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 실제로 FDA는 2026년 1월 AI 기반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웨어러블 기업 우(Whoop)의 혈압 측정 기능처럼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었던 기능이 웰니스 기능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나타남
-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Galaxy Ring)은 수면무호흡 위험 감지 기능으로 FDA 인허가를 받은 최초의 스마트링 사례로 거론되며, 이는 웰니스형 기기가 의료기기형으로 전환되는 반대 방향의 흐름을 보여줌
- 이처럼 규제 완화와 의료기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GAO 정책 옵션 ③ 독립 인증 데이터베이스가 지향하는 검증된 성능 기준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기조와 성능 검증 강화 기조 간 조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쟁점은 GAO의 정책 옵션별 산업 영향에서도 확인되는데, 옵션 ② 임상 워크플로 통합이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의 기술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수요가 확대되어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헬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옵션 ③ 웨어러블 성능 개선 유도가 도입될 경우 독립 인증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가 제품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며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형 제조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옵션 ③의 인증체계가 FDA 심사와 별도로 운영될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옵션 채택 방향에 따라 산업계의 대응 전략도 상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GAO의 3대 정책 옵션별 산업 파급효과

정책옵션	산업 영향	수혜/부담 주체
옵션 ① 현상유지	민간 자율 임상시험 지속, 시장 변화 속도 완만	기존 사업자 중심의 점진적 성장
옵션 ② 임상 워크플로 통합	의료기관 기술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수요 확대	디지털헬스 솔루션 기업의 신규 진입 기회 확대
옵션 ③ 웨어러블 성능 개선 유도	독립 인증 데이터베이스 등재가 경쟁력 기준으로 부상	인증 대응력을 갖춘 대형 제조사에 유리, 중소 제조사는 비용 부담

[자료] GAO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웨어러블 기반 원격 모니터링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시너지가 기대됨
- 이에 따라 한국도 △임상 워크플로 통합을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 지원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체계와 원격의료 보상체계의 연계 △체외진단 및 웨어러블 제조 기업의 국제 인증 대응력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체외진단 및 반도체 기반 정밀분석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향후 국제 인증체계 논의에 선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웨어러블 임상 통합의 제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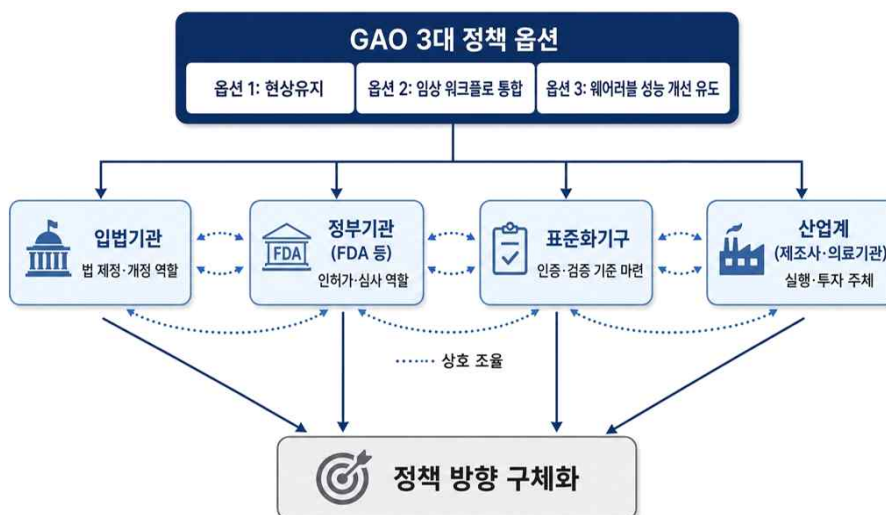
- 옵션 ② 임상 워크플로 통합이 실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데이터 수신 △해석 △책임 소재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의 다른 사업 자원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함
- 또한, 의료기관별로 웨어러블 통합 방식과 시행 시기가 상이할 경우 환자와 임상이가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에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옵션 ③ 웨어러블 성능 개선 유도의 독립 인증체계가 FDA의 심사 절차와 별도로 운영될 경우, △제조사 △임상의 △환자 모두에게 어떤 인증이 신뢰할 만한 기준인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FDA가 2026년 1월 AI 기반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성능 인증을 강화하는 정책 옵션이 실제로 병행 추진될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반된 정책 신호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향후 전망

- GAO는 3대 정책 옵션 중 특정안을 권고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며, △입법기관 △정부기관 △표준화기구 △산업계가 함께 각 옵션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두었음
-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단일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간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AI가 웨어러블 기기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능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향후 정책 논의는 AI 성능 검증 기준 마련과 병행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규제 완화 및 인증체계 논의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국가의 웨어러블 기기 규제 정책 설계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나 지역마다 다른 법적·기술적 규제 기준을 서로 일치시키거나 비슷하게 맞추어가는 과정

| GAO의 3대 정책 옵션 실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조율 구조



[자료] GAO

[출처] GAO, 2026.08.06.:Lexology, 2025.06.24.:Akin Gump, 2025.06.26.:Tech Policy Press, 2025.10.08.:Precedence Research, 2025.12.12.: KNIH, 2026.04.17.:FanRuan, 2026.04.13.:NEPLA, 2026.03.02.:보건복지부, 2025.12.02.:STAT News, 2026.01.06.: MedTech Dive. 2026.01.08.:MarketScale. 2026.08.14.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중국 의존 심화 ... 자국 생산 전환에는 수년 소요될 전망

U.S. struggles to break China's grip on pharmaceutical supply chains despite tariffs and investment push

- 미국이 △관세 부과 △투자 유인책 △중국 바이오텍(Biotech) 제재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나, 제조 시설을 신속히 이전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
- 미국 정책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은 미국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수입의 39.9%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었으며, 이에 미국은 규제 완화 행정명령 및 최대 100%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신규 제조시설 구축에는 통상 5년~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 4,800억 달러(한화 718조 7,664억 원) 이상의 미국 내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가 의약품 부족 심화 없이 자국 생산 역량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국제 의료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26.08.17.;South China Morning Post, 2026.08.17.]



미국-인도, 제약 협력 관계를 제네릭 중심에서 공동연구·투자로 확대 모색

U.S. and India look to expand pharma ties beyond generics toward joint R&D and investment

- 미국과 인도가 8월 18일 뭄바이(Mumbai)에서 열린 인도-미국상공회의소(Indo-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ACC) 연례총회에서 기존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중심의 협력 관계를 넘어 △공동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 미국은 인도가 자국 제네릭의약품의 40%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5,000억 달러(한화 748조 7,150억 원) 규모의 양자 교역을 목표로 인도 기업들에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 및 제조라인 투자를 요청하였고,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 측은 공동투자·공동개발 방식으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 이번 논의는 미국이 의약품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 리스크에 대응해 인도와의 협력을 제네릭 공급을 넘어 첨단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Asianet Newsable, 2026.08.17.;Express Pharma, 2026.08.19.]



수다르산 파마, 수출 확대 및 하이데라바드 신공장 가동으로 분기 실적 개선

Sudarshan Pharma lifts quarterly profit as export push and capacity build-out gather pace

- 인도 원료의약품(APIs) 제조사인 수다르산 파마(Sudarshan Pharma)가 2026년 4월~6월 실적 개선을 발표하며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신규 생산시설 가동 및 규제 수출시장 진출 확대에 속도를 냄
- 세후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하였고 매출은 20.1% 늘었으며, 회사는 하이데라바드에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증을 받은 원료의약품 중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고 유럽·미국 등 규제 시장을 겨냥해 2027 회계연도 수출액 목표를 설정함
- 이러한 확장은 인도 제약업계가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 확보로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인도의 대선진국 원료의약품 공급 기지 역할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Whalesbook, 2026.08.18.;ET Chemicals, 2026.08.19.]

SANDOZ

**산도스, 중국 바이오텍과 계약 체결하며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

Sandoz expands biosimilars business with Chinese biotech deal

-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Sandoz)가 중국 상하이 헨리우스 바이오텍(Shanghai Henlius Biotech)과 최대 10종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다년간 계약하며 사업 확장에 나섬
-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능이 유사하다고 인정받은 복제 바이오의약품
- 이번 계약은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최대 3억 2,200만 달러(한화 4,821억 7,246만 원)의 단계별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초기 협력 대상은 ①세특시맙(Cetuximab) ②에볼로쿠맙(Evolocumab) ③벨리무맙(Belimumab)의 바이오시밀러 3종으로 산도스가 중국 외 지역 판권을, 헨리우스가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함
- 이번 협력으로 산도스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39개 활성성분으로 확대되면서, 다국적 제약사가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력을 활용해 개발 속도를 높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및 치료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SWI swissinfo.ch, 2026.08.17.;Sandoz, 2026.08.17.]

**인도-독일 헤센주, AI·청정에너지·제약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 논의**

India and Germany's Hessen explore cooperation in AI, clean energy, and pharma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과 독일 헤센(Hessen)주 총리가 8월 19일 뉴델리(New Delhi)에서 △AI △청정에너지 △제약 △첨단제조업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헤센주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인프라와 제약·화학 분야의 산업 기반 및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역량센터(Global Capability Centre, GCC)* △반도체 △핀테크(FinTech)**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 다국적 기업이 해외의 우수한 인재와 비용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한 해외 사내 조직
-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서비스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 분야
- 이번 논의는 인도-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협정 발효 시 인도-독일 제약·화학 기업 간 공급망 통합 및 투자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KNN India, 2026.08.19.;India Shipping News, 2026.08.19.]

**IAG 카고, 쿠알라룸푸르에 콜드체인 거점 신설하며 아시아·태평양 물류망 확대**

IAG Cargo expands Asia-Pacific network with new Kuala Lumpur cold chain station

- 국제항공그룹(International Airlines Group, IAG) 산하 화물계열사 IAG 카고(IAG Cargo)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국제공항을 자사 콜드체인(Cold Chain) 네트워크에 신규 편입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을 13곳, 전 세계 거점을 약 100곳으로 확대함
- 우수공급망관리(Good Distribution Practice, GDP) 인증을 받은 쿠알라룸푸르 시설은 런던 히드로 공항(London Heathrow Airport)과의 직항 화물기 운항을 통해 능동·수동 온도조절 화물을 처리하며, 긴급 화물에 대한 우선 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 이번 확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콜드체인 시장에서 제약 부문이 2032년까지 연평균 1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물학적 제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 CGT) 등 정밀 물류가 요구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글로벌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STAT Times, 2026.08.17.;Pharmaceutical Commerce, 2026.08.18.]



스위스 2분기 경제성장, 관세 회피 목적 제약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치 상회

Switzerland's Q2 economic growth beats expectations on tariff-driven pharma export surge

- 스위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2026년 2분기 전분기 대비 1.5% 성장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빠른 분기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 관세 발효를 앞둔 화학·제약 분야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이 작용한 결과임

* 관세나 규제 시행 전 수출업체가 물량을 앞당겨 선적하는 행위

-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은 이번 성장이 로슈(Roche)와 노바티스(Novartis) 등 화학·제약 산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으며, 수출도 8.8% 증가하였으나 이는 7월 31일 발효된 최대 15% 대미 제약 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프론트러닝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성장이 일회성 수출 급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제약 관세 정책이 주요 제약 수출국의 경제지표 및 글로벌 의약품 무역 흐름에 지속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

[Yahoo Finance, 2026.08.15.;UnboxFuture, 2026.08.17.]



미국-인도, 무역협정을 위해 디지털 통상 및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진행

U.S. and India discuss digital trade, data rules, and non-tariff barriers for trade deal

- 미국과 인도가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규제 문제 등에 관한 화상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가 디지털 통상 일부 분야에서 미국 측에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워크에 따른 후속 논의로 △의료기기 규제 △ICT 제품 수입 인증 △데이터 현지화 등이 비관세 장벽 해소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인도의 ICT 수입 및 디지털 규제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인도는 이미 EU와의 협정에서 포괄적 디지털 통상 조항을 수용한 전례가 있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인도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및 대미 관세 인하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Free Press Journal, 2026.08.20.;Outlook Business, 2026.08.20.]



인도-싱가포르, 헬스케어 포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4차 장관급 회의 개최

India, Singapore hold 4th Ministerial Roundtable to boost cooperation including healthcare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이 8월 20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4차 인도-싱가포르 장관급 원탁회의(India-Singapore Ministerial Roundtable, ISMR)에 참석하며, △첨단제조업 △헬스케어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ISMR은 양국 간 핵심 경제협력 채널로, 상공부 장관은 헬스케어 등 분야 기업인 약 7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투자 및 기술협력 등을 논의하는 정부-기업 및 기업-기업 간 교류를 병행함
- 양국 교역액이 대폭 성장하고 싱가포르가 인도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공급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헬스케어 및 의료 협력 확대가 인도의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Deccan Chronicle, 2026.08.19.;ANI News, 2026.08.20.]

01 하버드의과대학 연구진, 뇌 영역 간 소통을 해독하는 AI 프레임워크 'CURBD' 개발

- 하버드의과대학교(Harvard Medical School) 연구진은 뇌 특정 영역 간의 정보 교환과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는 AI 프레임워크 'CURBD(Current-Based Decomposition)*'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뉴런(Neuron)에 발표함
- 그동안 신경과학자들은 기억 형성이나 의사결정 등 특정 행동 수행 시 개별 뇌 영역의 전기적 활동이 증가하는지는 규명할 수 있었지만, 해당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나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 영역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음
- 또한, 기존 AI 기반 분석 도구들은 개별 뇌 영역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만들어내는지는 알려줬지만 그 활동을 유발한 원인이나 한 영역의 활동이 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는 설명하지 못함
- 하지만 CURBD는 여러 뇌 영역에서 동시에 측정된 신경 활동 데이터를 각 영역 자체에서 발생한 신호와 다른 영역에서 유입된 신호로 분리해 영역 간 영향의 방향성과 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함
- 이번 연구는 미국 ①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②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과대학교(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③시더스-시나이 메디컬 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 ④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 연구진과의 협업으로 완성됨
-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의 이 프레임워크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뇌 영역 간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우울증과 기억장애의 발병 기전 연구를 가속화할 도구가 될 전망이다

** 이전 시점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며 처리해 시계열 데이터나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망 구조



Harvard
Medical School

[Harvard Medical School, 2026.08.07.; RamaOnHealthcare, 2026.08.10.]

02 클리블랜드 클리닉-IBM 연구진, 수면다원검사 데이터 기반 AI 위험 예측 모델 개발

- 미국 종합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과 IT 기업 IBM 리서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Research, IBM Research)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진은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PSG)* 데이터에 숨겨진 생리학적 패턴을 분석해, 기존 무호흡 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 AHI)**로는 가려낼 수 없었던 고위험 환자군을 식별하는 AI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함
- 연구진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수면 검사 데이터베이스인 '스타릿(Sleep Signals, Testing, and Reports Linked to Patient Traits, STARLIT)' 레지스트리(Registry)에서 확보한 1만 건의 고해상도 수면다원검사(PSG)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연동해 품질검증을 거친 9,608건의 자료로 모델을 훈련함
- 이 모델은 △신경 △안구 △근육 △심장 등 생리 신호에서 특성을 추출해 환자를 5개 위험군으로 분류했으며 최저위험군은 최저위험군보다 사망 위험이 2.71배 높았던 반면, AHI로는 이 차이를 예측하지 못했고 별도 코호트(Cohort)인 수면심장건강연구(Sleep Heart Health Study, SHHS)에서도 이 같은 연관성이 재현되어 다른 환자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임상 도입에 앞서 전향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가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AI 위험 예측 모델이 수면 데이터에 내재된 복잡한 생리 신호의 가치를 밝혀낼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함

* △뇌파 △안구 운동 △근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수면의 질과 단계를 평가하는 수면 검사법

** 수면 중 무호흡 및 저호흡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표준 지표

[News-Medical, 2026.08.06.; RamaOnHealthcare, 2026.08.06.]

03 스탠퍼드대학-아크 연구소 연구진, AI로 자연계에 없던 박테리오파지 게놈 설계 성공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와 비영리 생명과학 연구기관 아크 연구소(Arc Institute) 공동연구진은 수백만 개의 유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게놈(Genome)**을 설계하는 데 성공함

* 세균만을 감염시켜 사멸시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 생물이 지닌 유전정보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

- 연구진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을 숙주로 삼는 자연 바이러스 파이엑스174(ϕ X174)를 기준으로 게놈언어모델(Genome Language Model, GLM)*** 이보(Evo) 1.2에 수천 개의 게놈 설계안을 생성하게 한 뒤, 이 중 약 300개를 화학적으로 합성해 실제 실험에 사용함

*** 방대한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유전체 서열을 생성하거나 예측하는 AI 모델

- 합성된 후보 중 16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대장균을 감염시켜 사멸시켰을 뿐 아니라 기존 자연 파지에 내성을 갖게 된 대장균 균주까지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장균이 실험에 쓰인 자연 박테리오파지에 내성을 획득했을 때 AI가 설계한 박테리오파지 혼합물은 이 내성을 빠르게 극복한 반면, 자연에서 채취한 박테리오파지로 만든 혼합물은 극복하지 못함
- 또한, 저온전자현미경(Cryo-Electron Microscopy, Cryo-EM) 분석 결과 AI가 설계한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는 진화적으로 낯선 DNA 포장 단백질(DNA Packaging Protein)****을 캡시드(Capsid)*****에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물질(DNA)을 캡시드 안으로 밀어 넣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감싸 보호하는 단백질 껍질

- 전문가들은 AI의 생물학적 시스템 설계 능력에 걸맞은 생물보안(Biosecurity)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으며,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세균 내성을 억제하는 차세대 항생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CNN, 2026.08.07.;IBTimes Australia, 2026.08.08.]

04 유나이티드 하탈라, AI 기반 응급상황 예측 구급차 네트워크 도입

- 이스라엘 최대 자원봉사 응급의료조직 유나이티드 하탈라(United Hatzalah)는 응급 신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고 위치를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탑재한 구급차 20대를 이스라엘 전역에 새롭게 도입함
- 신규 구급차는 예루살렘 중앙지휘센터(Jerusalem Central Command Center)와 연결되어 있으며, AI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다음 응급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구급차를 해당 지역 인근에 미리 배치함
- 유나이티드 하탈라 운영담당 부회장은 AI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가 약 90%에 달해 10분~30분 후 발생할 응급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지역에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 접수 후 90초에서 3분 이내에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과거 응급신고 데이터 △교통 패턴 △날씨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 분석해 지역별 응급상황 유형까지 예측하며 청년층 밀집 지역은 외상성 사고가 고령층 밀집 지역은 뇌졸중·심장마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자들은 전용 앱으로 예상 신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대응 태세를 갖추며, 예측형 AI 기반 사전 배치 체계가 응급 대응시간 단축과 환자 예후 개선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i24NEWS, 2026.08.05.;The Yeshiva World, 2026.08.05.]

05 아수타 메디컬 센터-마이크로소프트, AI 진료보조 에이전트 공동개발

- 이스라엘 종합병원 아수타 메디컬 센터(Assuta Medical Center)는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와 함께 의사의 진료 기록 열람과 문서화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AI 진료보조 에이전트를 개발함
- 해당 AI 에이전트는 진료 전 환자의 진단 이력과 최근 검사 결과 등 핵심 정보를 미리 정리해 제시하며, 진료 중에는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규정을 거쳐 의사와 환자 간 대화를 듣고 기록해 △증상 △병력 △검사 소견 △치료 권고안을 포함한 진료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함
- 또한, 진료 후에도 추가 검사나 재방문 필요 여부를 파악해 일정을 잡는 것을 도우며 개발진은 의료진이 매달 수백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해 진료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의사는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문서를 △검토 △수정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진료기록에 반영할 수 있으며, 아수타 메디컬 센터 측은 이 시스템이 의학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보조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함
- 양사는 향후 △의료 △환자 서비스 △병원 운영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AI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동개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첫 시범 운영은 1년 이내에 시작될 예정임



[The Jerusalem Post, 2026.08.05.; Digital Health News, 2026.08.06.]

06 글로벌 엣지 AI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 2036년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미국 시장조사기관 팩트엠알(Fact.MR)은 글로벌 엣지 AI(Edge AI)*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이 2026년 37억 달러(한화 5조 5,405억 원)에서 2036년 128억 달러(한화 19조 1,671억 원) 규모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나 그 주변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기술

-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진단 및 환자 모니터링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환자정보의 외부 전송을 최소화하려는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 부문별로는 △소프트웨어 유형에서 엣지 AI 진단 소프트웨어(41%) △임상 응용 분야에서 의료영상 분석(44%) △시설 유형에서 병원(43%)이 각각 1위를 차지함
- 국가별 성장률은 ①미국이 14.4%로 가장 높았고 ②독일 13.8% ③일본 13.3% ④영국 12.7% 등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의 AI 의료기기 허가 목록이 계속 확대되는 등 규제 준비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미국 의료기기 기업 GE 헬스케어(GE HealthCare) △독일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등이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의료영상 AI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한 국가는 10%에 그쳐 시범 도입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 폭넓게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업계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임상 현장에서는 AI의 연산 처리속도뿐 아니라 판독 근거의 신뢰성과 환자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만큼, 향후 시장 경쟁력은 △임상적 근거 축적 △규제 준수 역량 △사이버보안 검증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Sheba Global, 2026.07.28.; MobiHealthNews, 2026.07.29.]

07 유타대학 헬스 연구진, 유전학과 AI를 결합해 골관절염 신약후보 발굴

- 미국 유타대학교 헬스(University of Utah Health) 연구진은 유타(Utah)주 가족 대상 유전학 연구와 AI 기반 분자생물학 도구를 결합해 골관절염(Osteoarthritis, OA)*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함

* 관절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만성 관절질환으로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이전 연구에서 유타주 가계 유전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전성 골관절염 일부 유형에서는 WNK2 유전자(WNK2 Gene)**의 변이가 질병 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관절 세포 내 WNK2 과활성이 염증 관련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세포 내 이온 균형과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 연구진은 AI로 WNK2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예측한 뒤 약 50만 개에 달하는 화합물이 이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50여 개 후보로 압축한 뒤, 육안 검토로 최종 6개 화합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단 몇 주 만에 완료함

- 이 중 하나인 선도물질(Lead Compound)*** M04는 염증을 유발하는 조건에 노출된 인간 연골세포 모델에서 골관절염 관련 유전자 다수의 발현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포 건강을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오히려 높이는 효과를 보임

*** 여러 후보물질 가운데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우수해 추가 개발의 중심이 되는 물질

- 연구진은 M04가 아직 독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미검증 상태라고 언급하며, 유타대학교 치료제가속화허브(University of Utah Therapeutics Accelerator Hub)와 협력해 동물실험을 거친 뒤에야 임상시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힘

[News-Medical, 2026.08.06.:University of Utah Health, 2026.08.07.]

08 중국, 생명과학 분야 AI 규제 강화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커져

- 국제 로펌 호건 로벨스 카드월레이더(Hogan Lovells Cadwalader)는 중국이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보안 △생물안전(Biosafety) △보건의료 규제를 아우르는 다층적 AI 규제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어 생명과학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 기업이 △법률 △규제 △윤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체계

- 중국은 7월 7일 국가 보건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The 15th Five-Year Plan)」을 공식 발표해 제약산업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AI 활용 고도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1년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의 시행의견인 'AI + 의약품 규제(AI + Drug Regulation)' 등 관련 규제가 잇따라 발표됨 ▶ <관련 내용 보기>

-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Measures for the Ethical Review and Servi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은 중국 내 최초의 전담 AI 윤리심사 규정으로, AI 관련 연구개발 활동 전 과정에 걸친 윤리적 거버넌스를 의무화함

- 로펌은 이 같은 AI 전용 규제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등 기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학습에 의료데이터를 쓸 때는 판단 근거 설명과 기술 윤리 심사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일수록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중요하다는 향후 규제 대응 역량이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함

[Hogan Lovells Cadwalader, 2026.08.06.:JD Supra, 2026.08.06.]

09 AIOTF 소프트웨어, CPAT 테크놀로지스 인수해 아프리카 의약품 추적 통합 플랫폼 도입

- 캐나다 딥테크(Deep Tech) 기업 AIOTF 소프트웨어(AIOTF Software)는 캐나다 의료기술 기업 CPAT 테크놀로지스(CPAT Technologies)를 인수해 자사의 AI 추론 기술과 CPAT의 GS1* 기반 의약품 추적관리 기술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아프리카에 도입한다고 밝힘



* 바코드 및 전자태그 등 유통 정보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

- 양사는 케냐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의약품 공급청(Kenya Medical Supplies Authority, KEMSA) △약국 및 독극물 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 PPB)와 협력해 케냐의 국가 의약품 추적관리 프로그램(National Pharmaceutical Traceability Programme)을 우선 시행함
- 통합 플랫폼은 ①의약품 포장에 일련번호를 매겨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국가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 Trace System, NTTS)’ ②의료시설 인허가와 감사를 관리하는 ‘퍼실리티 360(Facility 360)’ ③의료인력 자격을 관리하는 ‘프랙티스 360(Practice 360)’ ④제조사부터 약국까지 GS1 표준 준수를 강제하는 ‘컴플라이언스 360(Compliance 360)’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됨
- 케냐 사업은 ①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설 등록 진행 ②고위험 의약품에 일련번호 부여를 통한 비정상 유통 자동 탐지 ③제조부터 최종 조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추적체계 구축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향후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확장될 예정임
- AIOTF 소프트웨어 최고정보책임자는 이번 인수가 위조 의약품을 근절하고 아프리카 전역의 보건 투명성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케냐를 시작으로 검증된 기술을 아프리카 대륙 전반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임

[EIN Presswire, 2026.08.04.;Canadian Business Today, 2026.08.04.]

10 베른대학-취리히연방공과·응용과학대학 연구진, DNA 암호화 화합물 라이브러리 합성법 개발

- 스위스 베른대학교(University of Bern)는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ETH Zurich)와 응용과학대학(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ZHAW)과 공동으로 DNA 암호화 화합물 라이브러리(DNA-Encoded Library, DEL)*를 저자극 조건에서 손상 없이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함

* 화합물마다 DNA 바코드를 붙여 대량 합성해 표적 단백질 결합력을 동시에 검사하는 화합물 라이브러리

- 기존 DEL 합성에 쓰이는 화학반응 중 상당수는 반응 강도가 강해 민감한 DNA 바코드를 손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손상 없이 만들 수 있는 화합물 종류가 제한되어 라이브러리의 화학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연구진은 ①코에이(CoA)** 연결효소 ②특수 개조된 N-아세틸트랜스퍼라제(N-Acyltransferase)***를 저자극 조건에서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결합해 DNA 바코드 손상 없이 화합물을 합성함

** 세포 내 대사반응에서 아세틸기 등 특정 화학기를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조효소

*** 아세틸기를 다른 분자로 옮겨 붙이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 연구진은 이 효소 조합과 기존 화학적 합성법을 연계해 DNA에 직접 120개 이상의 다양한 분자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는 부피가 큰 DNA 바코드로 인해 입체적으로 까다로운 분자에도 효소가 정밀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번 합성법은 초기 신약개발 단계에서 △화합물의 화학적 다양성 확대 △자원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며 향후 다른 효소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

[University of Bern Media Relations, 2026.07.17.;SelectScience, 2026.08.07.]

11 DNA 스크립트-GE 헬스케어, ARPA-H 지원받아 세포 없는 DNA 생산기술 개발 나서

- 미국 DNA 합성 기업 DNA 스크립트(DNA Script)는 미국 의료기기 기업 GE 헬스케어(GE HealthCare)와 공동으로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으로부터 세포 없이 DNA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4년간 최대 2,600만 달러(한화 389억 3,318만 원)를 지원받음



* 획기적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획기관

- 이번 지원은 GE 헬스케어가 주도하는 '플래시(Flexible Automation for Scalable Health, FLASH)'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고품질 DNA를 신속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듈형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해 맞춤형 치료제 및 백신 등 유전자 기반 보건의료 연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플랫폼은 DNA 스크립트의 효소적 DNA 합성(Enzymatic DNA Synthesis, EDS)** 기술과 신택스(SYNTA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DNA 스크립트는 자사 기술을 GE 헬스케어의 독자적인 DNA 증폭 기술과 결합해 기술통합을 담당함

** 화학반응이 아닌 효소를 이용해 DNA를 합성하는 기술

*** DNA 스크립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탁상형 효소적 DNA 프린터 브랜드

- 양사는 궁극적으로 △자동화 △DNA 합성·증폭 △정제 △유전체 검증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해당 통합 플랫폼을 미국 내 △의학연구센터 △대학교 △연방기관 등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NA 스크립트 CEO는 이번 협력으로 차세대 치료제와 맞춤형 백신을 비롯한 유전자 의약품 파이프라인(Genetic Medicine Pipeline) 개발이 연구실에서 환자에게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될 것이라고 밝힘

[News-Medical, 2026.08.04.; Precedence Research, 2026.08.07.]

12 프리시제네틱스, 암세포를 실시간 관찰하는 생세포 이미징 플랫폼 '라이브-셀 시네마' 개발 중

- 미국 바이오텍(Biotech) 프리시제네틱스(Precigenetics)는 △라만분광법(Raman Spectroscopy)* △광학(Photonics) △미세유체공학(Microfluidics) △전산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을 결합해 염료나 형광표지 물질 없이 살아있는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실시간 생세포 이미징(Live-Cell Imaging)** 플랫폼 '라이브-셀 시네마(Live-Cell Cinema)'를 개발 중임

* 물질에 빛을 쬔었을 때 산란되는 빛의 파장 변화를 분석해 화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분광 기법

**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이나 고정 없이 실시간으로 관찰 및 분석하는 기술

-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 따르면 인도에서만 2022년 한 해 약 140만 건의 신규 암 진단이 발생했으며, 기존 항암 후보물질 상당수가 고정 및 염색된 죽은 세포로 평가되면서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독성이나 효능 부족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프리시제네틱스의 플랫폼은 암세포의 △진화 △치료 반응 △약물 내성 획득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인도 시르 강가 람 병원(Sir Ganga Ram Hospital) 종양내과장은 전임상 단계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더 일찍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이 연구의 파생 성과로 겸상적혈구빈혈 등 혈액소병증을 감지하는 비침습 센서와 살아있는 세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미세유체 생체 모사 장기칩(Organoid-on-Chip)*** 시스템도 함께 개발함
- 인도 대형 민간병원 포티스 헬스케어(Fortis Healthcare) 산하 포티스 메모리얼 연구소(Fortis Memorial Research Institute) 혈액학·골수이식 수석디렉터는 라이브-셀 시네마와 같은 세포의 연속적·비침습적 관찰 기술이 향후 질병모델 개선과 신약 개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인체 장기의 미세환경을 모사한 초소형 칩 위에서 세포를 배양해 실제 조직처럼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기술

[Indian Pharma Post, 2026.08.08.; Omnicuris, 2026.08.09.]

13 모더나, mRNA 독감 백신 ‘엠폴루시바’ FDA 승인 획득

- 미국 제약사 모더나(Moderna)는 자사의 mRNA 기반 독감백신 ‘엠폴루시바(mFlusiva)’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하며 미국에서 mRNA 기술로 만든 독감 백신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음 
- 해당 백신은 만 50세 이상 성인의 계절독감 예방용으로 허가되었고 50세~64세는 정식승인, 65세 이상은 신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이 각각 적용되었으며, 65세 이상 대상군에 대해서는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는 시판 후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함
- *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리평가지표를 근거로 우선 허가한 뒤 시판 후 확증시험으로 효능을 재확인하는 규제 경로
- 50세~64세 대상 임상 3상에는 4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엠폴루시바는 표준용량 기허가 백신 대비 독감 발병 예방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였으나, 지난 2월 FDA는 65세 이상 대상 임상시험의 비교군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거절 서한(Refuse to File, RTF)을 발부했음
- 이번 허가는 FDA가 서한 발부 일주일 만에 모더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6월 자문위원회가 두 연령대 모두에서 백신의 편익이 위험을 상회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임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지난해 8월 5억 달러(한화 7,487억 1,500만 원) 규모의 연방 지원 mRNA 계약을 취소하는 등 mRNA 기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증권가에서는 엠폴루시바의 최대 매출을 11억 6,000만 달러(한화 1조 7,370억 원)로 전망함
- 모더나는 오는 10월 중순 예정된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회의에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 포함 권고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됨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6.08.07.;Yahoo News, 2026.08.07.]

14 미국 군의료센터 산하 3D 메디컬 응용센터, 3D프린팅 임플란트 FDA 510(k) 시판전신고 획득

- 미국 월터리드 국립 군의료센터(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산하 3D 메디컬 응용센터(3D Medical Application Center, 3-D MAC)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3D프린팅(3D Printing)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510(k) 시판전신고(Premarket Notification)*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획득해 현장제조 의료기관 최초의 사례가 됨
- * 기존에 허가받은 유사 의료기기와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 시장 진입을 승인받는 미국의 의료기기 규제 절차
- 이번 허가는 외상성 두부손상이나 암 등으로 인한 두개골 결손을 재건하는 데 쓰이는 티타늄 두개골 플레이트(Titanium Cranial Plate, TCP) 시스템에 적용되며, 미국 3D프린팅 기업 3D 시스템즈(3D Systems)는 △규제 대응 △공정관리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구축 등을 지원함
- **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TCP는 나사 고정 부위가 플레이트 자체에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별도 부품 없이 바로 뼈에 대고 고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으로 나사 위치까지 미리 계획하고 △촬영 △설계 △제조 전 과정을 병원 내부에서 처리해 제작 기간을 단축함
- 3D 메디컬 응용센터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PEEK)*** 소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른 미국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산하 의료기관의 제조 거점으로 발전할 계획이며, 현장제조 방식이 군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강도와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뼈 대체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고성능 의료용 고분자 소재

[3DPrint.com, 2026.08.05.;3D Printing Industry, 2026.08.07.]

15 국제공동연구팀, 체온에서 자동 팽창하는 4D프린팅 혈관 스텐트 개발

- 일본 ①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②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중국 ③동남대학교(Southeast University) ④화남이공대학교(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⑤안후이医科大学(Anhui Medical University)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별도의 외부 가열장치 없이 체온만으로 자연스럽게
팽창하는 4D프린팅(4D Printing)* 혈관 스텐트(Vascular Stent)**를 개발함



* 시간이 지나거나 열 등 외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형태가 변하도록 설계된 3D프린팅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넓혀 혈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삽입하는 관 형태의 의료기기

- 연구진은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 기반 형상기억 폴리머(Shape-Memory Polymer, SMP)**** 복합소재를 프로젝션 마이크로 스테레오리소그래피(Projection Micro-Stereolithography, PpSL)***** 4D프린팅 기술로 가공해 미세구조를 갖춘 관상동맥용 스텐트를 제작함

***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해 의료용 소재로 널리 쓰이는 고분자 물질

**** 열이나 자극을 받으면 미리 설계된 형태로 스스로 변형됐다가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 소재

***** 자외선을 이용해 미세한 크기의 입체구조물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3D프린팅 기술

- 연구진은 가소제인 디에틸프탈레이트(Diethyl Phthalate, DEP)를 첨가해 스텐트의 반응 온도를 체온과 동일한 약 섭씨 37도로 정밀하게 조절했으며,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 가열 없이도 체내 삽입 즉시 스스로 원래 형태로 빠르게 복원되도록 함
- 실험 결과 이 스텐트는 충분한 유연성과 함께 혈관을 벌리는 데 필요한 방사방향 강도를 동시에 갖췄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생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인체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생쥐 대상 이식 실험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됨
- 연구진은 이 기술이 스텐트 삽입 기술을 단순화하고 부수적인 장비 사용을 줄여줄 수 있으며, 체내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되는 다른 이식형 의료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Medical Buyer, 2026.03.24.;Today's Medical Developments, 2026.08.08.]

16 베트남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온라인 매출 30% 성장 ... '정품·브랜드' 중심으로 재편

- 베트남 경제전문매체 베트남 브리핑(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베트남 뷰티·퍼스널케어(Beauty and Personal Care) 시장은 2025년 온라인 매출이 74조 4,000억 동(한화 4조 2,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으나, 정품 선호 소비자들이 공식 매장으로 몰리며 4분기 실거래 판매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는 등 시장 경쟁 구도가 선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함
- 재편의 배경에는 외국 브랜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자리하는데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 따르면 외국 브랜드가 베트남 화장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한국 브랜드가 수입 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특히 2025년 4분기 소비자들이 비공식 판매자보다 평균 판매가가 약 1.5배 높은 온라인 정품 인증 매장에서 전체 뷰티 제품 구매액의 64.4%를 지출한 것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택하는 뚜렷한 '정품 선호' 경향을 보여줌
- 이에 베트남 당국은 지난 5월 15일 발효된 90/2026/ND-CP호 시행령(Decree No. 90/2026/ND-CP)*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였고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000건의 단속을 통해 위조·밀수 등을 이유로 1,325억 동(한화 753억 9,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벌금 △영업정지 △리콜 △제품 폐기 등의 처벌을 강화한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 이처럼 △외국 브랜드의 시장 장악력 확대 △정품 인증 매장 선호도 상승 △정부의 위조품 단속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품 인증 브랜드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7 참 리버사이드, 다낭에 웰니스·온천 리조트 개장으로 건강관리 관광 모델 확장

- 베트남 웰니스·스파 전문 기업 참 리버사이드(Cham Riverside)가 8월 8일 다낭(Da Nang)시 호아쑤언(Hoa Xuan) 지구에 참 리버사이드 웰니스 & 온천(Cham Riverside Wellness & Onsen)을 공식 개장하였음
- 시설은 약 4,000㎡ 규모로 웰니스 목적지(Wellness Destination) 모델에 따라 △건강관리 △휴양 △문화체험을 결합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음
- 또한, △일본식 온천 △한국식 찜질방 △다양한 테마의 사우나 시스템 △스파 & 웰니스(Spa & Wellness) △티라운지 △건강식 레스토랑 △명상 정원 △문화 워크숍 공간 △휴식 구역 등이 마련됨
-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장은 다낭이 관광 상품의 다변화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 2026년 1월~7월 다낭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1,21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600만 명 이상(28% 이상 증가), 내국인 관광객은 약 610만 명(21% 이상 증가)으로 집계됨
- 따라서 △숙박 △음식 △여행 서비스 매출은 42조 동(한화 2조 3,898억 원)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증가함
- 관광기업들은 다양해지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 및 힐링 관광이 주목받고 있음



[Vietnam.vn, 2026.08.08.; Báo Đà Nẵng, 2026.08.08.]

18 보아오 러청,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정책 힘입어 '의료+관광' 융합모델 구축

- 중국 하이난(Hainan)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Boao Lecheng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Pilot Zone)가 하이난 자유무역항(Hainan Free Trade Port)의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융합 모델을 구축함
- 보아오 러청은 국제 혁신 약물 및 의료기기 상설전시회(International Innovative Drugs and Medical Devices Exhibition)를 상시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의료 및 제약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 현재까지 600종 이상의 특별승인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이 중국 내 최초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었으며, 한국 JK메디컬 성형외과의원(JK Medical Aesthetic & Plastic Surgery Hospital) 등 유명 의료기관이 입주함
- 올해 상반기 러청 방문 의료관광객은 64만 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됨
- 특히, 중국과 한국이 의료관광 전략협정을 체결한 이후 고소득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러청은 보아오 골프장(Boao Golf Course) 및 동위섬 리조트(Dongyu Island Resort) 등 우수한 관광시설과 연계해 △의료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융합을 강화하고 있음



[The Manila Times, 2026.08.07.; Macau Business, 2026.08.07.]

19 파키스탄, 비자 규정 완화 등으로 지역 의료관광 허브 조성 추진

- 파키스탄 정부가 비자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해 향후 5년 내 연간 100억 달러(한화 14조 9,743억 원) 규모의 의료관광 수익을 목표로 지역 의료허브 조성 계획을 추진함
 - 해당 계획은 △특별투자촉진위원회(Special Investment Facilitation Council, SIFC)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의료관광 워킹그룹(Health Tourism Working Group)이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환자에게는 질 높은 저렴한 치료시설을 제공하고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에게는 국내 치료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파키스탄 세하트 카드(Sehat Card)* 최고경영자는 파키스탄의 의료비가 △유럽 △미국 △캐나다 △걸프 국가 대비 60%~70% 저렴하다고 설명함
- * 파키스탄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에게 무상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 건강보험 카드 제도
-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위해 비자 정책을 완화하고 글로벌 방문객을 위한 특별 편의를 도입할 계획이며, 세하트 카드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관광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할 계획임
 -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만 명의 방글라데시 환자가 해외 원정 치료에 60억 달러(한화 8조 9,845억 원)를 지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함
 - 정부는 의료관광 확대가 △제약 △호텔 △항공 등 파급효과로 파키스탄의 의료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산업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SAMAA TV, 2026.08.10.;Sputnik News, 2026.08.11.]

20 이집트, 이집트 국가 의료관광 플랫폼 출범을 전략적 조치로 평가

- 이집트 국책 프로젝트관리 전문기업 이므칸(IMKAN) 최고경영자는 국가 의료관광 플랫폼(National Health Tourism Platform) 출범이 이집트의 의료 및 요양 관광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함
- 
- 의료관광 활성화는 △의료 품질 △환대 △관광 서비스 △교통 △재활·요양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국가 의료관광 플랫폼이 △의료기관 △관광시설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집트는 천연자원을 보유한 관광지부터 질 높은 의료 인프라와 인적 전문성까지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 상품 구축이 가능함
 - 최고경영자는 민간 투자 유치를 플랫폼 수익 극대화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른 △웰니스 리조트 △요양·재활센터 △의료 호텔 조성 △서비스 품질 표준화 △시설 인증체계 마련 △글로벌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외국인 방문객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의료관광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과 전문서비스 지출 증가를 통해 △항공 △호텔 △교통 등 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국가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이집트의 강점을 실질적인 관광·투자 상품으로 전환하는 통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의료관광 선도국으로의 성장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 2026.08.07.;Altreeq, 2026.08.09.]

21 위 케어 아시아, 말레이시아 사라왁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쿠칭 사무소 개소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중개기업 위 케어 아시아(We Care Asia)가 외국인 환자와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지역 내 병원을 연결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쿠칭(Kuching) 사무소를 공식 개소함
- 사라왁 부총리는 쿠칭 사무소 개소가 사라왁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반영 및 지역 의료 및 건강관광 목적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언급함
- 사라왁은 2025년 10만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보르네오(Borneo)* 3,500만 명 및 아세안(ASEAN) 7억 명 시장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확대 전략을 추진 중임
- * ①인도네시아 ②말레이시아 ③브루나이 3개국 영토를 나누어 보유한 세계 3대 섬으로, 사라왁이 위치한 섬
- 대부분의 외국인 환자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유대가 깊은 인도네시아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케어 아시아의 주요 역할은 외국인 환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의료관광 성장이 '사라왁-말레이시아 마이세컨드홈 프로그램(Sarawak-Malaysia My Second Home, S-MM2H)**'과도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함
- ** 사라왁 지역이 은퇴자 및 외국인 등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해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
- 위 케어 아시아는 전문의 발굴부터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의료 여정을 제공할 방침임
- 사무소 개소식은 중국 광저우 세인트 스태포드 모던 암 병원(St. Stamford Modern Cancer Hospital Guangzhou, MCHG)과의 협력을 계기로 진행되었으며, 사라왁과 광저우 의료진 간 △전문 교류 △연수 △연구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됨



[Sarawak Tribune, 2026.08.10.;DavakDaily, 2026.08.10.]

22 쿠비바-필립스, 병원-가정 연계 원격모니터링 협력 확대

- 스웨덴 재택의료 플랫폼 기업 쿠비바(Cuviva)가 필립스(Philips)와의 협력을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 후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결형 전환기 치료(Transitional Care)* 솔루션을 고도화하기로 함
- *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이나 다른 요양 시설로 이동할 때,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 이번 협력은 올해 초 카롤린스카 대학병원(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 및 스톡홀름(Stockholm) 지역의 가정 내 병원(Hospital at Home) 공급업체로 공동 선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추진됨
- 쿠비바는 HL7 FHIR** 및 openEHR*** 국제 의료정보 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기기와 데이터를 하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통합하며, 특정 회사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목표로 함
- ** 서로 다른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 간에 환자 진료 기록 등 의료데이터를 빠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만든 최신 의료 표준
- ***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에서 의료데이터를 △관리 △저장 △검색 △교환하기 위한 의료정보학의 개방형 표준 명세
- 필립스는 자사의 임상 모니터링 인프라와 공동으로 쿠비바의 개방형 플랫폼을 보완할 △레스피리(Respiree) △스마트케어(smartQare) △블루 스파크 테크놀로지스(Blue Spark Technologies) △케어테이커 메디컬(Caretaker Medical) △라이프시그널스(LifeSignals) 등 웨어러블 및 바이오센서 파트너들과 협력해 개방형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 쿠비바 최고경영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필요한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부터 가정까지 연계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설명함



[Mynewsdesk, 2026.08.10.;Medical Product Outsourcing, 2026.08.10.]

23 KPJ 헬스케어-싱헬스, 미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말레이시아 KPJ 헬스케어(KPJ Healthcare)가 싱가포르 최대 학술 의료 클러스터 싱헬스(SingHealth)와 파트너십 체결로 ①의료혁신 ②임상연구 ③교육 ④의료 시뮬레이션 분야의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 파트너십에는 KPJ 헬스케어의 전국 전문병원 네트워크와 말레이시아 최초의 민간 학술의료체계인 KPJ 헬스 시스템(KPJ Health System, KPJHS)이 참여함
- KPJ 헬스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파트너십 체결이 인재 양성과 혁신 발전에 대한 양측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함
- 주요 내용으로 △임상교육 및 인력개발 △연구·혁신 △임상협력 △디지털헬스·AI △지식교류 등 전략 분야에서 장기 협력체계 마련이 논의되었으며, 초기 협력과제로는 △펠로우십(Fellowship)* △전문의 파견 △학술교류 △공동연구 △논문 발표 △공동 콘퍼런스 개최 등이 포함됨
- * 의료진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심화 임상경험과 연구훈련을 쌓도록 파견·연수하는 프로그램
- 또한, KPJ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임상 △교육 △연구 △혁신 통합 플랫폼인 미래 건강 연구소(Future Health Institute, FHI)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함
- 말레이시아 전역 30개 병원과 3개 외래진료센터에서 연간 33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KPJ 헬스케어가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를 아시아 학술 의료 클러스터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Yahoo Finance, 2026.08.05.;India's News.Net, 2026.08.07.]

24 이집트 보건청, 튀르키예 의료기관과 협력 추진 ... 병원 공동개발 검토

- 이집트 보건청(Egyptian Healthcare Authority, EHA) 이사회는 8월 7일 튀르키예 방문 중 주요 의료기관들과 협력 강화 방안으로 △글로벌 경험 도입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보건 분야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함
- 이사회는 튀르키예 성형·미용수술 및 의료관광 전문기관 에스테월드 헬스 그룹(Esteworld Health Group) 방문으로 글로벌 표준에 따른 전문 의료서비스 운영 경험 확인 및 △의료서비스 개발 △인력교육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함
- 주요 결과로는 이집트 보건청 산하 남시나이(South Sinai)주 샤름엘셰이크국제병원(Sharm El-Sheikh International Hospital) 내에 에스테월드와 협력한 통합 성형수술 및 모발이식 센터 설립이 검토됨
-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에스테월드의 아프리카 대륙 첫 진출이자 중동지역 두 번째 진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사회는 튀르키예 최대 민간병원 그룹인 아지바DEM 헬스케어 그룹(Acibadem Healthcare Group)과 남시나이주 신규 다함국제병원(Dahab International Hospital)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 운영과 전문 의료서비스 개발 및 의료관광 노하우 활용 방안을 논의함
- 튀르키예 방문을 계기로 이집트가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국제 의료관광 허브로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Banker.news, 2026.08.08.;Eqyptian Gazette, 2026.08.08.]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2026 트레이서빌리티 세미나

2026 Traceability Seminar

개최도시 미국 워싱턴 D.C.

행사일정 2026.08.31.~2026.09.02.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례 세미나

주요내용 헬스케어유통연맹(HD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공급망 추적성 전문 세미나로,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SCSA) 이행 △규제 동향 △국가의약품코드(NDC) 전환 등 제약 공급망 핵심 현안을 다루는 연례 행사



어드밴스드 테라피스 유럽 2026

Advanced Therapies Europe 2026

개최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행사일정 2026.09.07.~2026.09.09.

행사주제 유럽에 맞춘 기획, 영향력을 발휘하는 설계

주요내용 유럽 최대 세포·유전자치료(CGT) 분야 콘퍼런스로, △임상개발 △상업화 전략 △규제 △제조 △시장 접근성 등 핵심 세션과 투자 서밋·파트너링 미팅 운영



메디컬 페어 아시아 2026

Medical Fair Asia 2026

개최도시 싱가포르

행사일정 2026.09.09.~2026.09.11.

행사주제 더 나은 네트워킹, 더 나은 미팅, 더 나은 비즈니스

주요내용 △진단 △전자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재활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며 △바이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헬스케어 미래 콘퍼런스 운영



RAPS 컨버전스 2026

RAPS Convergence 2026

개최도시 미국 샬럿

행사일정 2026.09.15.~2026.09.17.

행사주제 규제 전략·혁신·네트워킹을 위한 글로벌 규제 전문가 모임

주요내용 RAPS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최대 규제 전문가 연례 행사로 △생성형 AI △글로벌 허가 전략 △디지털헬스 △FDA 동향 등 규제 환경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 2026

BioProcess International(BPI) 2026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9.22.~2026.09.25.

행사주제 바이오프로세싱 혁신을 제조 현실로

주요내용 바이오프로세싱 분야 최대 콘퍼런스 & 전시회로, △세포주 개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디지털 바이오제조 △CMC 전략 등 6개 트랙과 250개 이상의 기업 전시 운영